

전후 독일의 영화 포스터

POSTWAR GERMAN POSTERS FOR FILMS

2017 4/19[수]→6/11[일]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4F 컬렉션 갤러리

주최: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 필름센터

후원: 주일독일연방공화국 총영사관

협력: 독일영화연구소(DIF), 산토리 홀딩스 주식회사, Goethe Institut/독일문화센터

인사말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은 1990년에 통일될 때까지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으며, 영화계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서독에서는 영화 제작이 다시 활발해짐과 동시에 미국이나 서유럽의 영화가 대거 들어왔으며, 동독에서는 국영회사 DEFA에 의해 독자적으로 사회주의적 영화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화문화의 갈림길은 영화 포스터에도 나타났습니다. 서독에서는 아트 필름을 배급하는 회사가 한스 힐만과 피셔=노스비슈 부부 등 신세대 그래픽 디자이너를 적극 기용하여 때로는 대담한 타이포그래피에 호소하는 참신한 포스터가 제작되었습니다. 한편 동독에서는 DEFA의 지휘 아래에서 에르하르트 그뤼트너와 오토 쿤메르트 등이 내성적이면서도 선전미술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을 창출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도쿄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와 교토국립근대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태로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까지 제작된 85점(서독 45점 및 동독 40점)의 영화 포스터를 통해, “철의 장막”을 사이에 두고 각각 발전해 온 두 개의 그래픽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시회 개최를 위해 귀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독일영화연구소(DIF) 및 산토리 홀딩스 주식회사, 각각 후원과 협력을 해 주신 주일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총영사관 및 독일문화센터, 그리고 도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4월

주최자

서독의 영화 포스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영화계의 특징은 미국 영화의 대량 유입과 자국 오락 영화의 부활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화업계에 상업적인 활기를 불어일으켰으나, 그중에서 국내외에서 제작된 아트 지향 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회사가 나타났다. 노이에 필름 쿤스트 발터 키르히너(1953년 설립), 아틀라스 필름(1960년 설립) 등의 야심적인 회사는 영화 포스터 제작을 ‘노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카셀파’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영화 내용과 관련된 전위적인 디자인을 실현시켰다. 본 전시회에서는 그 성과물로서의 포스터가 소개된다. 하지만 통속적인 상업 영화 포스터가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예술 영화 포스터는 뒤를 밀어 주던 배급사가 힘을 잃은 197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거의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동독에서는 1949년의 국가 성립 이후 DEFA(1946년 설립)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영화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고, 1950년에는 프로그레스가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어 국내의 영화 배급을 독점하게 되었다. 초기 프로그레스가 제작한 영화 포스터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그래픽 표현 방법을 이어받은 것뿐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에르하르트 그뤼트너 등 신세대 디자이너의 등장으로 점차 활기를 보이게 되었다. 문화적 표현에 대한 국가 통제가 존재하는 한편 상업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디자인상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비교적 일러스트레이션 지향이 강한 주목할 만한 포스터 디자인이 다수 제작되었다. 하지만 동독의 영화 포스터 디자인의 배경에 있었던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독일 통일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동독의 영화 포스터